

大學院教育의 現況과 課題

李 萬 甲

(서울大 大學院長)

I. 大學院教育의 現況

大學院이 量的인 面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文教統計年報에 의하면 1970년에는 專門大學院까지 포함하여 大學院數가 64개었는데 1980년에는 一般大學院數만 58個校이고 專門大學院까지 포함하면 121個校나 되고 있다. 한편 在籍大學院生數는 같은 기간에 碩·博士 합하여 6,139名(專門大學院生 포함)에서 一般大學院 在籍生만도 碩士課程에 15,767名, 博士課程에 3,774名으로 증가하였다.

과연 우리나라의 오늘의 現實에서 이만큼 高級專門人力을 양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問題에 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견해가 구구하겠지만 앞으로의 國家의 발전을 고려할 때 高級專門人力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問題는 과연 그들이 國家가 필요로 하는 分野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高級專門人力의 구실을 할 만큼 충분한 質의水準에 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回答을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별로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大學院教育이 質的인 면에서 극히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教育에 임하고 있었던 教授들 중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1979年度에 서울大學校에서는 大

學院重點強化方案을 강구하기 위하여 同大學校의 거의 모든 教授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거대한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研究結果에 담은 내용, 특히 오늘의 大學院이 안고 있는 問題의 성질을 검토해 보면 지금까지의 大學院教育이 얼마나 뒤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충분히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大學院教育이 質的으로 向上되지 못하게 된 要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大學院教育目的에 어긋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세가지 要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高級人力이 될 만한 충분한 資質을 가지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大學院教育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작컨대 이 사람들 중에는 高等教育 그 자체를 원한다기보다 碩士나 博士稱號를 취득함으로써 자기의 經歷을 假飾하거나 或은 다른 어떤 經濟的 利得을 얻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大學院教育을 받을 충분한 資質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教育자체를 받을 생각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다른 目的, 主로 博士稱號 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을 目的으로 大學院에 進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 代表的인 例는 醫學博士課程의 志願者이다. 韓國에서는 오랜 慣行과 社會的 通念 때문에 醫師는 博士學位를 가진 사람이라야 名醫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강하다. 그리하여 專門醫의 資格을 가진

사람도 오직 博士學位 취득이란 한가지 目的을 위하여 職業生活에서 꼭 必要하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大學院課程을 밟음으로써 우선 當事者 자신이 많은 金錢과 時間과 努力을 浪費할 뿐만 아니라 學校 當局에도 不必要한 努力을 소비하게 하고 나아가서 間接적으로 基礎醫學部門에서의 高等專門人力의 양성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은 듯하다.

文教統計年報에 의하면 1970년에 博士課程學生數(在籍學生數와는 약간 數에 差가 있음)는 518名인데, 그중에서 醫學分野의 學生數는 285名으로 全體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藥學分野의 博士課程學生數는 많아도 20名을 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醫學分野의 博士課程學生이 全體의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參考로 1952년에서 1971년 사이 서울大學校에서 新制에 의한 博士取得者는 모두 227名이고 그중에서 醫學分野의 博士取得者는 216名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에는 醫學分野의 博士課程學生數는 1,297名으로 全體學生 4,026名의 32%로 比率는 相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대신 工學分野(630名)가 크게 증가하고 語文(452名), 人文(247名) 理學(463名), 社會(556名), 農林(254名) 등 基礎學術的인 分野에서 전반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醫學分野의 博士課程學生數는 아직 상당히 많으며 우수한 入學志望生이 워낙 많기 때문에 定員이 미달되는 다른 分野의 學生定員數를 一部 割愛받을 수 있는 조치가 1981년에 취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原則적으로 醫師는 專門醫의 資格만 가지면 족하다 하겠지만 꼭 博士學位를 가져야만 有能하다고 인정되는 社會世態라면 專門醫의 資格을 취득한 사람에게 곧 醫學博士의 學位를 인정한다든가 혹은 더 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別途의 特殊高級課程을 설정해서 자기의 專門의 職業에 直接 긴요한 研究를 쌓은 뒤에 碩士課程을 거치는 번거로움이 없이 醫學博士學位를 취득케 하는 制度的 改善을 시도하는 것이 緊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번의 要因은 大學當局이 學部教育도 충실히 하기에는 教授陣이나 教育施設에 있어서 불

충분한 條件이 적지 않은데도 大學이면 의례히 大學院도 설치해야만 外形의인 권위를 자랑하고 구색을 갖춘 격이 된다는 생각에서 애초에 不實을 각오하고 大學院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그런 大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筆者는 잘 알지도 못한다. 다만 大學이나 大學內의 學科가 충분한 條件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大學院 課程을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말이 자주 들려오고 또 그것이 어느정도 公정한 단한 예기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한 것이다.

學部課程이 충실하게 실시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大學院課程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大學院課程까지 包含해서 大學院의 發展方案을 論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뿐더러 現實적으로 도움이 되는 結果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大學院이 發展하기 어려운 要因으로는 다른 次元에서 몇 가지를 더 들 수 있다. 먼저 들어야 할 要因은 大學院의 必要性에 관한 公共社會의 一般的 認識이다. 韓國의 學制는 解放後 美國의 制度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教育을 담당하는 사람의 觀念은 日政時代에 가졌던 慣習을 바탕으로 키워진 것이며 따라서 大學學部도 制度上으로는 日政時代의 高等學校 또는 大學豫科와 大學 1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教育하는 內容은 日政時代의 大學에서 실시한 것과 同等한 水準이어서 美國大學에서 學部の 3,4學年과 碩士課程의 一部에서 가르치는 비교적 높은 水準의 內容이었다. 그대신 大學院은 制度로만 존재하고 正常的인 教育이 실시되지 않는 學科가 허다했다. 그리고 大部分의 學父母도 子女를 大學까지 시키면 족하지 大學院까지 시킬 必要를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大學院까지 보낼 經濟的 能力도 없었고, 學生 자신들도 大學院教育의 學費支援까지 父母에게 의존하기가 어려웠다.

大學院에 대한 教授·學生·學父母의 認識 뿐만 아니라 一般社會組織體에서도 大學院出身을 필요로 할 만큼 專門의 知識을 가진 사람을 大量으로 必要로 하지 않았다. 다만 大學校나 高度的 知的 能力을 必要로 하는 研究所, 그밖의 특수

한 職業分野에서 大學院出身者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기관들의 需要 때문에 大學院教育의 充實化를 위한 財政支援이나 其他의 條件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社會的 氛圍氣였다. 심지어 學制를 제정하고 그것을 착실히 발전시킬 直接的 責任이 있는 文教部 조차도 初等教育을 위한 過重한 부담과 다른 與件 때문에 大學院을 바람직한 형태로 발전시킬 政策을 수립하고 실시할 能力이 없었다.

둘째로 들어야 할 要因은 大學院教育을 받을 만한 우수한 學生이 外國, 특히 美國에서 獎學金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얻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國內의 大學院은 外國에 갈 學生이 軍에 갔다 올 때까지, 혹은 개인사정으로 당장 外國에 가기 어려운 學生이 취직하고 있는 동안 學籍에 몸을 담는 中間寄留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教授나 學生이 진지한 자세로 教育에 임하는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세째로 들어야 할 要因은 學園의 慢性的인 소요사태다. 4.19 이후 大學街는 學生들의 示威나 抗議 또는 그밖의 學校當局이 허락하지 않는 行動으로 말미암아 소요사태가 그치지 않고 심할 때에는 戒嚴令까지 선포되어 學業이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이 때문에 學校當局은 問題를 일으키는 學部學生들을 指導하고 學園의 秩序를 유지 또는 회복하는데 분망하여 大學院教育은 고사하고 學部教育조차도 힘을 기울여 正常的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大學院學生이 소요사태에 관련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大學院教育은 外觀上 學部보다 正常的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컸었고 더욱이 專門大學院의 教育에서는 그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때 學園의 소요사태는 大學이 大學院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努力할 여유를 주지 못했고 그것은 특히 최근 몇년 동안에 있어서 大學院發展에 가장 지대한 惡影響을 주는 要因의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네째로 들 수 있는 것은 教授들이 經濟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서 他校에 出講하거나 學校教育에 관련이 별로 없는 일, 例컨대 新聞社의 論說委員職을 겸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일에 종사

하는 일이 잦고 혹은 經濟的인 곤궁과는 관련이 적지만 우수한 教授들이 公共機關이나 어떤 團體를 위한 諮問役割에 분방하거나 研究用役에 관여함으로써 大學院教育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였던 것이다.

다만 專門大學院에 있어서는 社會的인 需要가 크고 비교적 많은 財政的 부담을 걸머지지 않더라도 많은 學生을 教育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量的인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教育大學院과 行政大學院은 일찍부터 발전했으며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60年에서부터는 經營分野의 專門大學院도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II. 大學院 育成을 위한 努力(서울 大學校의 事例)

韓國의 大學院은 經濟發展을 비롯하여 自主國防態勢를 強化할 必要性的인 증대, 그밖의 社會 전반에 걸친 變化에 따라 필연적으로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 첫째의 變化는 前記한 바와 같이 高級專門人力의 社會的 需要가 급증함에 따른 大學院數와 大學院學生數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그 둘째의 變化는 大學院의 운영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大學院長들이 大學院의 質的 發展策을 강구하기 위하여 1973年에 全國大學院長協議會를 設立하게 되었다는 事實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全國大學院長協議會가 每年 가진 會議에서 發表하고 토론한 主題와 論文內容들을 보면 韓國의 大學院이 發展하는데 金요한 原則的인 方案은 상당히 광범하게, 또 어느정도 깊이 있게 다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각 大學院長은 지금까지 全國大學院長協議會에서 論議한 內容을 涉獵參考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大學院이 놓여 있는 여러가지 具體的 條件을 감안하여 具體적인 應用方策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한편 서울大學校에서는 同大學校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高級人力養成을 위한 요구가 다른 어떤 大學校에 대해서보다도 강하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미 全國大學院協議會가 설립되기 이전에 大學院教育을 개선시킬 노력을 전개하기 시

작하였다. 즉 서울大學校에서는 大學院教育이 少數의 學生과 指導教授의 個人的 접촉을 통한 教育의 모습을 띠고 形式性을 갖춘 크라스에서 質質的인 내용을 담은 教育을 하지 않는다는 專攻을 바꾸는 것을 잘 容納하지 않으려는 閉鎖性을 갖고 있다는 등의 缺陷을 시정하고 正式 博士課程을 밟지 않은 者에게도 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는 舊制를 철폐하는 등시에 새로운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기 위하여 多數의 學生을 양성하여 有能한 學者와 高級專門職業人을 공급할 態勢를 갖추기 위하여 1971年 「大學院教育의 強化策研究」의 結果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서울大學校大學院은 冠岳山캠퍼스에서의 移轉을 契機로 크게 改編됨에 따라 大學院의 기구와 運營方式도 따라서 많이 改善되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變化는 大學院長 밑에 敎務·學生·庶務의 三課가 있었던 것을 없애고 大學院 教育을 各各 該當大學長 또는 特殊 大學院에 委託하기로 했으며 大學院長의 主要業務를 大學院 委員會를 委員長으로서 主재하는 한편 大學院 運營의 重要事項을 결정하는데 參與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院長은 실제에 있어서 學事行政에 意見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行政執行의 責任은 갖고 있지 않다.

둘째의 커다란 變化는 大學院學生數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事實이다. 大學院學生의 數는 70年代 初부터 증가하여 移轉하기 전제 卽 1974년에는 碩士課程에는 275名을 졸업시켰는데 75년에는 408名으로 約 1.5倍 증가했으며 1980년에는 689名, 81년에는 1,111名을 졸업시키고 있다. 이 數字는 74年度의 卒業生數의 4倍에 해당하는 數字인 것이다. 碩士課程에 비하면 博士課程을 수료한 學生數는 늘지 않고 오히려 一般的으로는 감퇴하는 傾向을 보였다. 卽 1973년에는 152名, 74년에는 204名, 75년에는 163名으로 대체로 150名에서 200名 사이의 數字였는데 76년에는 81名으로 줄었고 79년까지 70名정도의 水準이었다가 80년부터 100名 水準을 넘게 된 것이다.

이것은 舊制博士學位授與制度가 폐지되면서 전에는 博士學位取得者중의 50% 내지 70%를 차

지 하던 醫學博士의 取得者가 50% 以下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다른 部門에서 博士學位를 취득하려는 學生數가 아직은 별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外國에서 學位를 받을 기회나 가능성이 적은 國學, 語文系와 政府가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科學技術 分野에서 博士學位 取得者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齒醫學分野에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들면 79年 이전에는 齒醫學博士學位를 받은 사람은 每年 15名이 넘지 못했는데 80年, 81년에는 各各 29名, 28名으로 2倍정도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大學校에서 大學院學生數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79學年度부터였다. 이미 그전부터 社會的 需要의 증대와 大學院生의 應募資格을 完化하여 종래의 閉鎖性을 철폐하고 專攻學科를 바꾸는 可能性을 넓혔기 때문에 서울大學校大學院에의 入學을 지원하는 者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79學年度에 있어서는 文敎部가 78學年度의 碩士課程 入學定員數 1,092名의 거의 倍에 해당하는 2,005名으로 늘렸기 때문에 大學院生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碩士課程 뿐만 아니라 博士課程도 78學年度의 239名에서 79學年度에는 398名, 80學年度에는 625名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政府는 大學院生의 모집定員을 대폭 증가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需要가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自然系 敎員要員確保를 위한 特別措置法」을 成案하고 法の 公布는 80年 1월에 있었지만 그에 앞서 79學年度 入學生중 400名을 미리 선발하여 同法에 의한 敎員要員으로서 每月 5萬圓의 獎學金지급, 登錄金, 期成會費 免除, 軍服務期間을 1年으로 단축하는 兵役特惠 등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大學院學生數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大學院의 質的 向上에 대한 關心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大學校에서는 70년에 들어선 무렵부터 大學院 強化를 위한 方案을 수립하는 努力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오던 터였다. 그런 傾向이 大學院의 量的 膨脹 때문에 더 촉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大學校는 1978年 11월에 「大學院

中心大學特性化計劃案」을 수립하였고, 79學年度에는 서울大學校 教授가 종전에 文教部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던 研究費를 받지 않는 대신 6億원의 研究費를一括해서 수령하여 모든 教授가 大學院重點育成研究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방대한 研究는 各 學科의 입장에서 大學院을 重點的으로 育成하려면 어떤 方策이 필요한가하는 根本的 問題를 主題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 研究結果가 제출된 뒤 그것을 綜合分析檢討하여 1980年 12월에 全國大學院長 및 教務處長이 참가한 세미나를 서울大學校에서 개최하여 報告하고 各 學科에서 提出된 報告書도 모두 配布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研究의 背景 및 進行」, 「人文·社會分野에서의 結果分析 및 綜合」, 「自然科學分野에서의 結果分析 및 綜合」의 題目을 갖고 全體會議에서 報告가 있었고 이어서 「1970年代 서울大學校 大學院의 改革目的: 內容과 結果」, 「大學院教育方法改善 및 效率的 學事運營을 위한 研究」, 「大學院入學 및 論文提出資格試驗에 대한 檢討」, 「學科單位的 大學院教育」등의 主題를 가지고 分科報告會를 가진 뒤 討議를 전개하였다. 이 研究는 80學年度에서는 前學年度에 비해 豫算面에서 半으로 삭감되었다. 그리고 研究內容은 各 學科에서 大學院教育에 필요한 教材의 開發에 集中하게 되었고 또 大學院 전체의 입장에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問題들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Ⅲ. 大學院의 發展方向

大學院은 各 學問分野에서 重要한 理論과 方法을 비롯하여 基本的이며 最新의 높은 知識을 습득함으로써 獨立된 學者 또는 研究者로서 새로운 知識 또는 技術을 創造·開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아카데미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아카데미한 目的과 原則에 어긋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거기에는 아카데미한 活動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아카데미한 活動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과 施設, 그리고 資金이 있어야 한다. 大學院의 發展이라는 것은 곧 이 條件들을

向上市켜 보다 훌륭한 아카데미한 活動을 할 수 있는 人材를 양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의 경우 아직 大學院教育은 先進國家의 보통의 大學院水準으로 正常化될 수 있는 段階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大學院教育이 제대로 되려면 教育과 研究活動 그리고 學術的 情報의 적절한 供給의 세가지 要素가 적절히 有機的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教育에 관해서 말한다면 근자 外國에서 本格的인 教育을 받은 유능하고 意欲的인 博士所持者가 많이 招致되어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施設은 아직 未備한 때가 많다.

人文·社會科學分野에서의 大學院教育은 學部와 같이 講義式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세미나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 目的에 적합한 教室이 많지 않다. 또 大學院生이 講義時間이 없을 때 앉아서 혼자 공부할 적절한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만이 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講義가 없을 때 大學院生은 研究所에서 教授의 研究를 도우면서 學習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에 있는 大部分의 人文·社會科學分野의 研究所는 실질적인 研究를 할 수 있을 만큼 施設도 되어 있지 못하고 人員도 극히 부족하며, 研究費도 별로 없다. 教授의 研究活動은 主로 個人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研究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個人的으로 이루어지는 研究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研究所가 충분한 研究費를 마련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教授들이 중요한 課題를 정하고 피차 관련되는 問題를 가지고 共同討論을 하며 協同研究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주 發表會를 가진으로써 大學院生으로 하여금 항상 學問的인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서 勉學에 열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院生은 항상 최신의 學術的 情報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자기가 접근하기 쉬운 研究所에 기본적인 重要圖書 特別 學術雜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좀더 깊이 알아야 할 事項이라면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入手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의 경우 基

本的으로 필요한 圖書나 資料를 마련하고 있는 研究所는 거의 없으며 도서관에서조차 못 가지고 있는 圖書가 너무나 많다.

日本에서는 大學院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綜合 大學校라면 대체로 外國 學術雜誌를 6千 타이틀 정도는 마련한다고 하는데 서울 大學校가 구독하고 있는 外國 學術雜誌는 3千 타이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本人 자신의 經驗에 依하면 大學院生에게 읽히기 위하여 10卷의 基本的인 社會學圖書를 選擇하고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2卷만 圖書館이 갖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만족스러운 學術論文이 작성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圖書 특히 學術雜誌에 관한 限 自然科學分野의 事情은 좀더 良好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實驗設備는 만족스러운 狀態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大學院生은 肉體的으로, 精神的으로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곧 職業生活에 들어가거나 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身分에 상당하는 物質的 生活與件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우기 韓國의 大學院이 個個人的 學問의 好奇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高級頭腦所持者의 양성이라는 必要性 때문에 존재한다면 마땅히 國家의 財力으로 그들이 研究하는데 필요한 生活與件, 즉 적절한 生活費와 경우에 따라 住宅까지도 변통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費用은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政府가 1,000名이 博士課程을 修了할 때까지 每月 30萬원씩 5年間 獎學金을 지불한다고 치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每年 180 億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용으로 우리가 韓國의 安全을 보장하고 世界市場에서 先進國과 경쟁하며 人生의 高貴한 삶의 價値를 창조할 수 있는 人間들이 生活에 큰 부담없이 공부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면 결코 대단한 돈이 아닌 것이다.

政府는 高級頭腦의 養成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每年 豫算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慣例的으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劃期的으로 그만한 資金을 투입할 決斷을 못내리고 당장 아쉽거나 가까운 곳에

서 아우성치는 要求에 대응하는데 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政府에서 大學院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部處는 文教部다. 그러나 文教部가 그만한 豫算을 確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뿐 아니라 各級學校의 校室不足 해소, 敎員의 待遇改善, 學園事務의 管理 등에 분망하다 보면 사실 그 效果가 한참 뒤에 가서 나타날 大學院發展問題에 심각한 자세로 精力을 기울일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韓國에서 쓸 수 있는 最大의 資源이 人間이고 世界의 발전이 主로 人間이 갖는 知識과 技術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以上 필요한 數의 高級人力의 개발에 必要한 大學院強化에 政府가 비상한 努力을 해야 함은 너무나 自明한 일인 것이다.

비단 資金面에서 뿐만 아니라 大學當局이나 文教當局이 大學院教育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制度를 빠른 時日내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가령 博士課程을 밟을 能力을 가진 사람이라면 碩士課程을 필한 뒤에 博士課程에 들어가는 번거로운 過程을 밟음으로써 時間과 돈과 精力의 소모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碩士課程은 그것만으로 足한 職業分野에 종사할 사람 혹은 個人的인 사정에 의하여 碩士課程으로 일단 끝내야 할 사람만 밝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밖에 大學院入試制度, 學位授與制度, 學部와 大學院教育의 連繫性을 강화하는 措置, 大學과 大學間의 協調를 강화함으로써 人力과 시설을 共同으로 活用할 수 있는 콘소시엄의 아이디어 채택, 敎科課程을 수시로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方案의 개발도 必要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大學院強化에 있어서 누구도 별로 지적하지 않지만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學科의 組織이 能率的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敎科課程을 적절히 개편한다거나 學位論文提出資格試驗을 실시하고, 論文을 심사하며, 敎育과 研究를 能率的으로 추진하려면 學科가 단지 個別的 敎授의 集合體가 아니라 學科長을 中心으로 하여 敎授, 行政要員, 助教, T.A., 技術系助手 등의 組織이 잘 되고 學事委員會나 其他의 委員會등이 활발하게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한다. 그러러

면 우수한 行政要員의 確保를 비롯하여 필요한 財政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大學院長의 役割에 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간혹 서울大學校의 大學院이 과거의 組織形態로 되돌아가고 大學院長이 行政責任과 權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意見이 私의으로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本人은 과연 그것이 妥當한 意見인지 確信을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大學院운영이 바람직하게 強化되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그 主要原因이 大學院長의 行政的 權限이나 그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行政機構의 缺如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아직 新制를 제제로 실시하고 있지도 못한 마당에 大學院이 잘 안되는 까닭을 新制의 缺陷으로 돌리기에 時期尙早의 感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大學院長의 役割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이 있으면 大學院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하나는 大學院長이 中心이 되는 委員會를 조직하여 (1) 世界知性的의 흐름, 學問的 活動의 方向, 그것이

人類社會에 미치는 영향등을 定期的으로 檢討하여 教科課程 改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2) 各學問間의 協調를 촉진하고 특히 人文·社會科學分野와 自然科學分野간의 유대를 긴밀히 하도록 노력하며, (3) 大學院에서의 教育·研究活動을 評價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日常的 運營의 眼目을 넘어서서 長期的이고 넓은 視野에서 大學院의 發展方向을 살피고 軌道修正을 적절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大學院委員會가 行政的 便宜 爲主로 운영되는 종래의 자세를 넘어서서 좀더 權能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院委員會를 강화하여 여러 學問分野에 있는 教授의 意見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여기에 기술한 내용은 筆者가 1982년 봄에 있는 全國大學院長協議會에서 연설한 것에 添削을 가한 것이라는 것과 그 내용이 전적으로 自然人으로서의 個人的 의견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